

## 시대의 소망 - 일곱 교회 The Desire of Ages

저술가 엘렌 지. 화이트가 기록한 대쟁투 총서 "시대의 소망"에서 인성이신 그리스도 야쉬와를 언급하였다. 이것을 학개 2:7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소망이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는 여전히, 화이트 자매가 우리의 구주를 아주 더 높이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분께서 모든 나라들의 소망이심을 찬양하였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리워하는 구주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아직도 그 분께서 모든 시대의 소망이 되시는가? 지금도 인류가 그 분을 갈망하고 소망하는가? **Yes**, 확실히, 그 분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그 분을 시대의 소망으로 환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 시대들"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또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날 교회들의 상태에 관하여 할 말이 많다. 그러나, 여하튼 그 시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코 아무도 나에게 그것에 대하여 명백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고, 또 내가 교회 주석에서도 그것에 대하여 유익한 정보를 많이 찾을 수도 없었다. 아무튼 일곱 교회들이 있고, 또 내가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문제가 될지라도, 그것에 담긴 의미들에 대한 지식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아주 잘 숨겨진 것이다. 나의 형제들이 이것을 모르거나, 무지하지 않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것에 대한 상당한 자료들을 읽은 후에 "새로운 빛" 안에서 죄를 극복하고 승리함과 현저한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이전 사업들을 적용하여서, 내가 발견한 것들을 기록하기로 결심하였다, 이것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1)** 각 시대들의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고, **2)** 연대순의 길잡이 안에서, 현재 이 시대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며, **3)** 창조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자체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대총회 단계로부터 철회하고,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이름에 항거함은, 사실상 **모든** 교파로부터 교회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것에 입각하여 검토할 것이다.

여기에서 일곱 교회들 당시에, 그 명칭들과 그 특징들이 일곱 부분으로 구별된 교회 역사와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어떤 중요한 대사건에 따라서 정의를 내린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교회 시대: 에베소** - "에베소" 이름의 뜻은 "바람직하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 시대를 상징하고, **1** 세기에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여전히 생존한 시대이며, 마가복음 **16:20**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명백하게 볼 수 있도록 "따르는 표적"들과 함께 모든 말씀을 확고하게 하였다. 계시록 **2:1-7**절에서 이 시대 교회가 실제로 선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완전하였다 - 교회 멤버들이 악을 미워하였으므로, "사도들"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하여, 진리에 따라서 행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사도행전에서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수고하였다. 고 하셨다. 그들이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미워한 "니콜라당" 교리의 가르침을 역시 미워하였다. 우리가 잠시 후에 이 니콜라당이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고, 또 다시 다른 시대 교회들을 언급하여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너희 첫 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계시록 **2:4**) 바울이 이렇게 사도 교회를 반대하여 경고하지 않았는가? 그가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였다. "또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좇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 내가 삼 년 동안 밤낮으로 너희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29-31**) 첫 번째 교회가 마치 첫 번째 사람 (아담)처럼 서서히 작은 오류들이 침투하게 하였다. 오, 그들이 아담처럼, 결과적으로 모든 고통이 이를 것을 최소한도로 깨닫지 못하였는가! 우리에게 "작은 죄들이 없다." 는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수의 가짜 교사들과, 소수의 가짜 교리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연약한 그리스도의 종교가 산산조각이 났으므로, 세상의 편치 백이 되었다. 지금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으며, 또 예언과 기적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로 올라 오라, 그러면, 내가 그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창조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그대에게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취급할 것이다.

**두 번째 교회 시대: 서머나** -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몰약"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받으신 선물들 중에 하나이다, (마태복음 **2:11**) 이것이 두 가지 종류로 사용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다 - 이것이 원래, 향수로 사용되었고 (시편 **45:8**) 또 두 번째로는 죽은 자를 보존하는 방부 처리제로 사용되었다. (요한복음 **19:39**) 이 몰약의 주된 기능을 성경이 말하기를, 왕들을 매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끌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고 한다. 이 몰약이 성경을 통하여 자주 언급되었고, 솔로몬의 노래에서 무언의 "별들" 중에 하나로 표현되었다.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 **1:1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따뜻하게 하여 으개었을 때, 그 향기의 강도가 최대한으로 발생한다. 이

경우에, 실제로 그 "몰약 다발"을 으깨어 정연하게 피부에 기름과 함께 문질러서 사용하였다.

교회가 로마의 네로, 히드리아누스, 도미티아누스와 다른 지배자들의 발꿈치 아래에서, 땅에 짓밟힘 당하였다. 2세기 동안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흩어졌다 - 어떤 사도들은 사형을 당하였고, 어떤 사도들은 감금을 당하였으며, 어떤 사도들은 망명하였다. 그리하여 결코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게 되었다! 순교자들의 충실한 증언과 피로 그들의 믿음에 인을 쳤으므로, 그러한 암흑 시대일지라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끌어당길 수 있었는가? 마치 몰약처럼, 분쇄되고 으깨어진 교회가 가장 달콤한 향기를 발하였다. "내가 너희 행위와 환란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네가 부요한 자로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Yes**, 그들이 환란을 당하였고, 또 빈곤하였으므로, 이 세상이 그들을 빈약한 자들로 간주하였지만, 야의 시야에서는 그들이 부요하였고, 알곡을 모으는 자들이었다.

계시록 **2:9**절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이 환란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소수 그룹에게 이러한 큰 위협이 닥침과 동시에, "유대" 교회가 크게 흔들려 신속히 떨어져 나갔다. 긴 기간 동안 기록된 교회 역사의 경향을 볼 때, 마음이 야하나님과 함께 온전하지 않은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서머나 교회 당시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은 것이다: 야곱의 환란 때 충실한 자들을 "불 속에서 연단한 금"과 같이 정결케 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지 않은 자들 모두는 "벗길 더미"처럼 불타서 무너질 것이다. 서머나 교회가 과별 다툼으로 의견을 달리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쁘게 말한 것이 없음을 주목할 수 있다! 환란 때, 교회 내부에서 어리석은 의견 충돌들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 시대에 접한 오늘날의 교회가 그 당시보다도 더욱 큰 위기에 놓여있다,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견디어낼 수 있을 것인가?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10,11**) 이것이 실로 우리에게 귀중한 약속들이다! 이는 이백년 동안 로마가 단행한 끔찍한 압박 외에 다른 시대가 될 수 없다.

**세 번째 교회 시대: 버가모** - "버가모"는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한다; 하나는 "높아진"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결혼"이다. 오, 콘스탄틴, 놀라운 콘스탄틴. 그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얼마나 많은 손상을 입혔는가! 우리에게 달콤한 독약을 주는 그들을 후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공개된 적을 미워하여야 할 것이다. 그 시대에, 박해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가! 이는 계시록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회가 다신교 로마와 "결혼"하였으므로,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여 무서운 짐승을 산출한 것이다,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열 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계시록 **13:1**) **Yes**, 그녀가 세상 시야에서 "높임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 알 수 있다, "내가 너의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 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계시록 **2:13**)

로마가 **2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한 후, 바로 그 로마에 교회 중심지를 세울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못된다. 교회 지도자들이 학살당하지 않기 위하여, 정연하게 그들의 믿음에 타협하기를 바란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 참으로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사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이 시대를 위하여 야쉬와께서 계시록 **2:17**절을 그분의 기별로 결론지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콘스탄틴이 이른 "결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비틀거리면서 일요일 경배를 공식적인 날로 정한 것은, 중요할 만한 그러한 이단을 초래한 것이었다. (**no**, 그가 그것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가 그것을 교회의 교리로 만들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 교회에게, "네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고 책망하셨다. 계시록 **2:14** 우리가 민수기 **25:1-9**절에 있는 스토리와 그 이전 장을 읽으면, 발람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에게 미친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이 다른 종족 미디안 여자와 결혼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그들의 끔찍한 우상숭배에 참가하였다. 이는 다신교를 신봉하는 로마가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을 때,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부정한 결합을 한 것이며, 우리가 (민수기 **25**장)과 똑같은 사건이 재림교 안에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모든 것이 어둡고 음침한 것만이 아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목하시고 칭찬하신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분께서 지목하신 또 다른 점은, 그들이 로마와 결합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바로 사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고 하셨다. 계시록 **2:13** 교회가 로마와 결합하였을 때, 교회 지도자 아리우스의 뒤를

이어서 어떤 자가 "아리우스파 학설"을 선언하고 일어났다. 그가 주장하기를, 야께서 실제로 그 분을 육신으로 만들지 않았고, 단지 그 분께서 첫 번째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다. 누구든지 여호아 증인들의 이론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은, 즉시 이러한 가르침들을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윗 문단에서 토의한 그 당시의 사건들을, **A.D. 320**년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그 교리가 위험이 따르는 오류임을 깨닫고, 가짜 교사들을 폐하였다. 아리우스가 그 당시에 다른 교사들로부터 어떤 후원을 받고, 그 교리를 제정한 것이었다, 아무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불화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투쟁으로 말미암아 콘스탄틴의 새로운 "신부" 교회에 그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므로, 그 문제를 결정짓기 위하여, 콘스탄틴이 저 유명한 "니시안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 결과, 교회 주요부가 즉석에서, 야쉬와께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개념을 기각하고, 그 분이 야웨 아버지와 완전히 동등하고 영원히 공존하시는 본성을 가졌다고 재차 단언하였다 - 이렇게 이단 신앙으로 끝장을 낸 것이다. 물론, 오늘날 어떤 교회들이 여전히 **1700**년 전에 결정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도, 참된 교회는 (전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그 분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한가지가 더 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언급한 이 교리 "니콜라당"을 살펴본다. 내가 여기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전에 설명할 것이 있다. 실제로, 성경말씀에 있는 대부분의 단어들이 이중의 뜻을 나타낸다, 버가모의 명칭으로 적절하게 정의를 내린 시대에, 이 편지서가 **실제로** 버가모 교회 상태를 기록한 것을 기억하라.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분리하였다. - 교회 이름이 실제로 위치한 장소에 따라 특징 지워졌고, 또 그 시대에 있었던 문제들이 되는 사실을 미루어서, 바로 그 단어의 뜻에 의하여 교회 시대의 정의를 내린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니콜라당" 교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하나는 그 이름 "니콜라"를 기초로 하였고, 또 하나는 실지로 그 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본질적인 교리 자체를 본질적인 버가모 교회에게 적용시킨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니콜라당의 교리를 적용시켜서 이름지은 것이 버가모 교회 시대이다.

먼저 이름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니콜라"의 이름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 "니콜"의 뜻은 "정복하다" 이고 "라"의 뜻은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들"이다. 이 두 시대와 사도 시대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지도자들이 평신도들을 지배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참된 사도들의 (요한일서 **2:8**)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권력에 굶주린 가짜 교사들이 권세를 부리려고 노력할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요한삼서 **1:9**) 에베소 시대에 사도 교회가 "차칭 사도라 하지만 야닌 자들을 시험하고," (계시록 **2:2**) 따라서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 (계시록 **2:6**) 버가모 시대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교리를 소유하였다. 고 선언하였다. 어떤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지도권을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으므로, 이것이 버가모 시대 안으로 뚜렷하게 반영되어서, 로마 제도 아래에서 각종 지도자들의 역할을 더 높이 명시하고, "격식을 차린 고위직"을 더 높게 되었다.

그러므로, 니콜라당의 교리들이 실제로 무엇이며, 참된 초기 버가모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여기에서 "니콜라당" 이름의 특징을 말한 것이, 버가모로 이름 지어진 시대에 그 영향력을 끼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같은 방식으로, 참된 교회의 참된 교리 안에 해독을 끼치는 교리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성경 백과 사전에서 (<http://www.christiananswers.net/dictionary/>) "니콜라당"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6**)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찬양하였고, 또 버가모 교회는 니콜라당 '교리들'을 지키는 자들을 허용한 것을 책망하였다 (**15**절). 그들이 길보기에는 기독교인들로 공언하는 부류들이었으나, 교회 안으로 그릇된 자유와 부도덕함을 받아들이기를 추구하였으므로, 이런 식으로 바울이 말한 은혜와 관련된 교리를 악용하였으며, (베드로후서 **2:15,16,19**절을 비교하시오), 또 대체적으로 (그들이 바라고 갈망한 것이) 발람의 교리를 소유한 자들과 똑같았다. (계시록 **2:14**)

누구든지 은혜가 되는 교리들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숙고하라! 어떤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뚜렷하게 말하기를 노력하라...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더 명백하게 말할 수 있다. **1** 세기 때, "그노시스주의"라고 명칭한 무서운 이단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였다. 이 교리가 가르친 것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분께서는 완전히 사람이 아니셨고, 단지 바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영으로 보내심 받았다고 하였다. 이것 둘 다 개천의 오류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여기에서 최근에 그릇된 생각을 가진 한 부류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또 한 부류는 그 분께서 완전히 사람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사도 요한이 이 가르침을 전적으로 싫어하였다, 왜냐하면 희망을 잃은 타락한 인간이, 물질적인 세상을 믿고, 구원의 희망이 없는 육체의 욕정에 거하는 동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실 수 없는 것이다.

그 분께서 요한일서 **4:2,3**,절과 요한이서 **1:7**절들에서 "불"같은 말씀으로 이것을 반박하신다. 그 분의 완전한 복음이 그 분의 충만하신 인성과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이 결합되어서 표현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 요한이 그노시스주의를 미워하였다. 그러나, 그노시스주의가 무엇을 함축하였는가? 에베소의 저자에 의하여 기록된 교회

역사에서 설명하기를, 초기 멤버였던 안티옥 사람 니콜라스라고 칭하는 집사가 (사도행전 6:5) 배교하고 나간 것은, 그가 가르친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 사업과 상관없이 행동한 것이다. 지금 참으로 우리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야고보가 지적한 것처럼, 만일 이 은혜가 선한 일들을 행하도록 자연스럽게 인도하지 않으면, 참된 은혜가 아니다. 그노시스주의의 가르침은, 인간의 육체 안에 전혀 선한 것이 없으므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상관없이, 영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는다. 고 한다.

이것이 귀에 익은 소리인가? **Yes.** "한번 구원받았으면 항상 구원받은 것이다"는 이 가증한 가르침의 교리가 지금도 활기차고 교묘하게 구체화되고 있다. 한번 그리스도께 그대의 생애를 바쳤으면, 음행, 도둑질, 살인... 이러한 것들을 행하였을지라도,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하늘에서 그대의 명성을 잃을 수 있고, 그대의 영광을 잃을 수 있을지라도, 그대의 영원한 생명은 잃을 수 없다. 고 한다. 이것이 거짓말 거짓말이다! 매주 목사들의 이러한 가르침들이, 무덤 속에 있는 요한과 베드로와 바울을 전락시킨다. 이 그노시스주의가 "무한한 은혜"의 표제 아래에서 부활하여 - 현대식 기독교인들에게 침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의 참된 명칭이 "음행"이라고 선언한다. 내가 그노시스주의의 참된 표제를 말하였으므로, 그대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 역시 미워한다." 고 말씀하신 어떤 것을 멀리하라.

현재, 참된 기별은,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이다. 그노시스주의는 사탄의 진리이며 지옥과 동등하게 마련된 것이다. 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가르침은,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나는 고범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내가 그것을 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사악함에 굴종하는 성향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 분께서 나에게 악한 욕망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는가? 이것을 요한이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고,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3:9) 이것이, 우리가 타락함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바울이 자주 그노시스주의를 반대하여 경고하였고, 또 그가 아버지께 항상 올바른지, 끊임없이 **그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에게도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과한 후에 도리어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고 하였다. (고린도전서 9:27)

그노시스 교리의 ("한번 구원받았으면 항상 구원받았다는") 가르침의 원칙은, "비록 그대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대는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대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하실 것이고, 또 아무튼 - 그대가 계속적으로 향상함에 따라서, 그 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화"될 수 있다. 고 한다. 언젠가 존경받는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어찌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할지 모른다, 그러나 매일과 같이 내가 그 분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전과 같이 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훌륭한 말 같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튼... 영적인 진화론자이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론을 가르친다. "오 하나님여,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는 다윗이 결코 "나를 더 향상하도록 하여 주시고, 나를 예전보다도 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상상하신 것과 같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조금 더 좋아지게 하여 주소서" 라고 말하지 않았다. **NO.**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분의 아들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 분의 영원하신 생명을 받아들일 때, **지금** 야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다. 그 즉시 우리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지만, 우리가 **성장**하기 시작하여 기독교인의 "씨로부터 받아하였든지", "어린 묘목"이 되었든지 또는 "어린 나무"로 성장하는 모든 단계가 완전한 것이다.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이와 같이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무섭게 매혹하는 이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라.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항상 구원받기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 이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 분의 은혜를 통하여 알고 있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이긴 이기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가 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1** 세기에 (요한일서 5:4절)에서 사도 요한이 그노시스 교리를 반박한 것을, 지금 내가 새롭게 구체화하여 응수하였다.

**네 번째 교회 시대: 두아티라** - 이 명칭이 - 그리스어의 두 단어들로 융합하여 구성되었다. - 이것의 의미가 "끊임없는 희생"이다. 콘스탄틴의 법칙으로, **A.D. 7**세기에 정치적인 압력을 교회에 가하였으므로, 결국 교회 지도자들의 결심이 무너졌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 완성되었다. 교회와 국가의 부정한 결혼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황의 직위가 완전히 형성하여 성장기를 이루었고, 그들의 아들, 로마 교황이 "지상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직함을 취하였다.

이 시대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읽는다.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가 자칭 여선지자 이사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였다." (계시록 2:20) 사도교회에 남은 자들이 누더기 옷을 입었으므로, 더 이상 "에베소"가 아니고, 더 이상 "바람직"한 교회가 되지 못하였다, 이는 교회가 바로 역사상 이사벨이 행한 것처럼 사기꾼이 된 것이다. 그 이후로, 이 세상이 줄곧, 프랑스 혁명과 종교 암흑 시대와 종교 재판으로 고통을 당하였고, 끊임없이 희생자들을 내었다.

그렇지만 "끊임없는 희생"에 대한 언어에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 다신교 교황권 제도 아래에서 다신교의 관례 형식이 "미사" 의식으로 알려진 것을 숙고하라. 이것이 암시하는 것에 대하여, 케톨릭과 개신교도의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무지하다. 미사는 그저 믿는 자들이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의식이다, 이 의식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또 다시 희생시키고 그 피에 그들을 참가시킨다. 베드로가 이점에 대하여 명백하게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18) 이것을 또한 히브리서에서도 숙고하였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번 드러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28)

그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의식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고 하셨다. 그 분께서 그것이 매년 희생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미사의 희생 의식"은 성찬용 빵과 발효된 술이 초자연적인 과정을 통하여 실제로 야쉬와와 몸과 피가 되어, 완전히 실체화되는 사건이라고, 케톨릭교 어떤 신부든지 그대에게 말할 것이다. 미사는 매년 행할 때마다, 연속적으로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므로, 케톨릭교 신부들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또 다시 십자가에 못박는 것이다," 이는 히브리서 6:6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분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것이다." 두아티라 교회는 우리의 구주를 한번 죽으시고 두번 살아나신 구주로 만들어서, 매주마다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바쳤으므로, 두아티라는 참으로 무서운 교회 시대였다.

그대가 계시록 2:19-23절로부터 끝까지 읽으면, 이 마지막 날에 이러한 배교로 우상 숭배하는 교회가 멸망당할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다. 지금도 그 분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두아티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계시록 2:24,25) 그 분께서 그 조직 위에, 파멸의 예언을 선언하신 후에, 아직도 바벨론 성벽 안에 거하고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위하여, 여전히 온화한 동정심으로 말씀하셨다. 그들이 외로운 방랑 길에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참된 기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두아티라 시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계시록 2:19) 그 분께서 실제로 칭찬하실 만한 것을 칭찬하셨다. 정직하게 말하면, 케톨릭 교회가 꽤 많은 선행을 하였다. 자선사업 기관들, 병원들, 학교들... 이 모든 것들이 훌륭한 사업들이다. 만일 오직 행함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교회 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진주 문을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분께서 칭찬하실 만한 것을 칭찬하셨지만, 불행하게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고 하셨다. (계시록 2:21)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사도행전 10:3,4), 케톨릭 교회가 단행한 자선 사업을 참으로 하늘 왕국이 인정하였다, 그 보상으로, 그들이 그들의 코스에서 회개하고 행실을 개선하도록 - 기회를 주신 후에 또 기회를 주시고 - 개혁자들을 보내신 후에 또 개혁자들을 보내셨다. Yes, "믿음"이 두아티라의 덕행에 하나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하늘이 보낸 경고를 교회가 거절하였으므로,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필연적인 파멸을 초래하였으므로, 환각에 사로잡힌 타락한 조직을 남겨 두고 다음 교회 시대를 위하여 도로 포장을 놓았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함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로마서 1:28)

**다섯 번째 교회 시대: 사데** - 개혁자들! 사데의 의미는 "탈출하여 남은 자들"이다, 이는 이 예언의 표제 아래에서 항거하는 자들의 이름, 곧 루터교가 얼마나 훌륭한 방식으로 그 목적을 성취하였는가. 마르틴 루터가 95 조항에 따르는 논쟁점을 위텐버그 교회 문 위에 못박은 후, 큰 그룹의 충실한 기독교인들이 감금된 로마 케톨릭 교회를 탈출하여 나갔다. 과거에 그들에게 함박 스며들게 한 종교적인 경험들과 극단적이고 죽은 형식주의와 질식할 것 같은 로마 다신교의 타협들을 벗어 던지고, 성경 말씀에 충실하기 위하여 새로운 열성으로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선도한 용감한 멤버들이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계시록 3:2) 이것이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게 유일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며, 이는 그들이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을 개혁자들의 기록들로부터 쉽사리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알기로는, 칼빈이 "절대적인 예정설"을 믿었고, 또 루터는 어떤 민족 차별주의자로 죽었다. 그래도, 그들이 받은 큰 빛대로 살았고 진심으로 행한 이유 때문에, 그 기별이 계속된 것이다. "사데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네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함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계시록 3:4) 아멘! 이는 아무것도 무시하지 않는 그 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한다.

개혁자들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 여기에서 그들의 교리 안에 들어있는 오류들이 최근에, 모든 "종파들"을 인도한 것에 대하여 할 말이 많다, 그러나 내가 참으로 이것을

총람할 의도가 있었다. 내가 이미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이는 이 때에 상황들이 참으로 급강하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모든 독자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이 시대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격려한다; 이는 참으로 놀랄만하고 굉장한 계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사데 교회 시대의 행위들이 완전하게 발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한층 더 많은 빛들이 올 것이다!

**여섯 번째 교회 시대 : 필라델피아** - 북 아메리카에 있는 많은 독자들이 이 단어의 뜻을 이미 알고 있다. 바로 미국에 있는 도시의 이름과 같은 "필라델피아"이며 그 뜻은 "형제간의 사랑"이다. 이 시대에 두 번째 개혁이 시작되었다. 윌리엄 밀러와 그의 그룹에 속하는 믿는 자들이 성경 말씀에 있는 사건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타락한 종파들로부터 충실한 자들이 부르심 받고 나왔고, 이 사람들이 야쉬와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전에 믿던 그들의 종교들을 포기하고 진리의 깃발 아래 연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들이 열렬하게 야 앞에서 완전하고 올바르게 소망한 결과, 그리스도께서 두번째로, 아무 부정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은 시대의 멤버들로 고려하신 것을 지적하였다. 서머나 교회 시대에 박해가 있는 후, 그러한 칭찬을 들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로마의 추세로부터 그들 자신들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처리하지 못하였던 개혁자들보다도, 재림 운동 후에 안식일 진리가 추가됨과 함께 그들이 수행한 사업들이, 한층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을 지금 발견하였다.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계시록 3:8)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소유한 큰 힘을 칭찬하지 않았다, 참으로, 재림 운동이 소규모였고, 또 에베소 시대처럼, 눈에 보이게 강한 인상을 준 것도 아니다. 똑같은 때에, 그들이 소유한 작은 힘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킨 몇몇의 충실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것이 원인이 되어 놀라운 진리가 그들에게 드러났다. 그들이 안식일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잠시 후에 취급할 것이다) 성소 문제에 속하는 가르침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다른 기록들에서 마지막 대속죄 사업을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지만, 이 지점에서 이것에 대하여 적절한 말을 하자면, 레위기와 히브리서가 조합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그리스도 "대제사장"께서 속죄 사업을 수행하시는 것이, 고대 이스라엘 아론의 모든 자손들이 행하던 제사장직의 일들을 근거로 한 것이다. 모든 시대의 마지막 격변이 오기 전에, 심판이 계시되고 은혜 기간 안에 "열려진 문"이 있는 것을 밀러와 그의 그룹이 깨닫게 된 것이다. 에베소서 교회처럼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오직 첫 사랑을 지켰더라면,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역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하였다: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었으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계시록 3:9) 그대가 "서머나" 교회 시대를 기억하는가? 박해가 있을 동안에, "유대인" 교회의 운동이 실제로 파괴되었고, 불행하게도, 그 시대 끝 버가모 시대에 교회가 다신교 로마와 "결혼"하였으며, 또한 안식일 축복이 소멸되었다. 지금, 이 여섯번째 교회 시대에, 안식일 축복이 회복된 것을 우리가 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격려하여 구약 시대에 있었던 언약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사탄의 회당"이 된 그들이 진실로 믿는 자들 발 앞에 경배하였으므로, 오랫동안 간직되었던 비밀이 누설되어, 약속된 제 칠일 안식일이 회복되었다.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말하기를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이 되었다. 왜 우리가 제 칠일에 안식일을 지키는가? 이스라엘이 지키고 행한 것과 똑같은 이유 때문이다. 야께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왔고, 또 우리를 죄로부터 데리고 나왔다 - 이 두 경우에 우리가 창조력의 능력을 기념하고 자유롭게 되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계시록 3:10) 이 성경 구절이 흔히 다른 사람들에게 의하여 아주 부당하게 사용되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지상에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제거될 것이다.' 고 주장한다. 내가 다른 기록들에서 그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아무튼, SDA 초기에, 세상에 보내는 참된 마지막 기별들을 준비하였지만, 현재 재림교의 마지막 움직임을 통하여 최초의 예언자들을 잠재웠다. 그들이 훌륭하게 봉사하였고, 또 지금은 죽음의 침묵으로 그들이 받을 보상을 기다리고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3:11) 그 시험의 때가 곧 올 것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라"고 그 분께서 말씀하셨다,

**일곱 번째 교회 시대: 리오디게아** - 필라델피아 교회가 경고를 아주 잘 받았다. 그들이 약속된 확실한 보상을 받기 전에, 최후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다 되었으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라." 여섯 번째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아주 잘 행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이 "군히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 오. 그들이 빛에 유산을 우리에게 제공한 것이 참되다, 그러나 신량이 늦어지므로, 현명한 처녀들까지도 잠을 잤다. "리오디케이" 단어의 의미는 "사람들의 권리"이다, 이는 누구든지 SDA 등록상표의 배신 행위를 잘 알고 있는 자들과 내가 기록한 것들 중에서 "표와 인침"을 읽은 자들은 이 표제의 중요성을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다.

버가모의 어두운 시대에 개혁 교회들과 재림 운동가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까지도 끔찍하게 남을 함정에 빠뜨리는 교활한 독을 방출하였다. 바로 지금, 다음 천년기에 누릴 평화가 가까웠고, 실제로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안식일 기념 축제를 우리의 눈으로 인지하게 될 것이다. - 왜냐하면, 참으로 이 육천년기의 어두운 밤이 끝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SDA 교회가 공개적으로 야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하기에 열중하고 있지 않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파괴하고, 다른 자들도 그들과 같이 행하도록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No... 절대로 그럴리가 없다고. 고 말할 것이다. 글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영"으로 지키지 않으면, 똑같은 때에,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야쉬와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신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덤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덤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덤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겠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이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고 하지만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험뻐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시록 3:15-17) 필라델피아 교회가 건전하고 현명하였다.... 그 이유로, 야께서 재림교를 축복하시고 부요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정연하게, 그들이 기쁨으로 머지않아 있을 그분의 재림을, 전세계에 선포하는 사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부요함을 사용하여 - 대학교들, 교회 자문 위원회들, "높은 지위들"로 그들의 왕국을 건축하였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제 칠일 안식일 재림교가 부요함을 목적으로 몰두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정연하게 이 크고 훌륭한 탑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대총회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교단" (이 표현법에 주목하라)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명칭을 상표로 등록한 것은, 재림교가 정연하게 수락할 수 없는 인물들이 일상적으로 (등록된 재림교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국가 법으로 그것을 행하므로,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부인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이 그렇게 행함을 책망하고, 또 안식일 자체가 그것을 금한다, "안식"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조직이, 다른 자들의 믿음을 강요할 수 있는가? 대총회가 말하기를, "이름을 포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대를 고소하여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고 한다.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방식이 될 수 있는가? 나와 대화를 나눈 재림교의 법적인 조치에 동의는 목사가 이런 방식으로 그들 자신들을 정당화하였다 - "시대가 변경되었으므로, 이 이름을 남용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방어하여야 할 것이다."

**Yes,** 야께서 참된 교회에게 주신 그 이름이 방어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름이 그분에 의하여 방어되어야 할 것이다. 재림 교회가 바로 그 적에게 가서 그 이름을 방어하도록 한 것이 한층 더 나쁜 것이다! 그들이 가이사의 칼을 구입하기 위하여, 장래에 언젠가 그들을 사로잡을 자들, 바로 그 이집트에게 되돌아갔으므로, 그들이 언젠가 한번 탈출한 바로 그 울가미 속으로 다시 떨어진 것이다. 참된 잠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가 스스로 토해 낸 것에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쟃고 나서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22) 아직도 그대가 "표와 인침"에 대한 기록을 읽지 않았으면, 꼭 읽기 바란다. 내가 그것을 기본적인 조건에 적합하게 총람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 자들이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별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계시록 3:18,19)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흰 옷을 사서 입을 수 있다! 이전 시대들 당시에 어떤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야쉬와와 함께 합당하게 행하였다 - 그러나 **오늘** 그 분께서 그대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그것을 받으라." 고 하신다.

우리가 그 옷을 사 입어야 한다. **Yes** 그것은 지불할 가치가 있다. 부자 법관이 그리스도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질문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다, **yes...**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야쉬와의 믿음으로 그 분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러한 타락한 조직으로부터 나와서 **그 분**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는 어떤 교파나 어떤 교회의 교리들을 따르지 않는다. 사실상, 우리가 어떤 것도 따르지 않는다 - 우리는 충실한 사람이신 대제사장을 따른다. 그분의 백성들이 소유한 이름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의 표준이 있고, 또 우리가 상속권을 소유하였다 - 그 상속권이 이사가 마지막 장에서 설명한 훌륭한 나라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라.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그때 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창세기 12:1- 3)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모든 가족들과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이스라엘의 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곳에서 칼데아인들의 땅으로 보낸, 유다의 사로잡혀 간 자들을 이 좋은 무화과들 같이 그렇게 인정하리라." (에레미야 24:5) 창조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유다야, 아름다운 땅, 하늘 땅으로 오라.

내가 이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고도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계시록 18:2- 5)

그대가 타락한 조직들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였는가? 내가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고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15- 18)

이 문장을 기록하기 시작할 때 내가 질문한 의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응답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마지막 교회 시대에 야쉬와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라오디케아가 여기 계신다. 고 말한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계시록 3:20) **Yes**,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리고 그 분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서 계신다. 만일 누구든지 응답하고, 그 분께서 서 계시는 문을 열면 - 그 사람에게, 그 조직에게, 그 분이 들어가셔서 거하실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날들이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이다. 창조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이전에 내가 기록한 "상속권을 주장한다"에서 지적한 것처럼 에레미야 24장의 유다이다. 즉시 그대가 와서 땅을 상속받으라고 우리가 초대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시작한 바로 그때부터 아주 마지막 때인 지금까지 전진하고 있는 방식이다. 일곱 교회 시대의 첫 날부터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또 지금 우리가 지난 교회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의 친절한신 야쉬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줄곧 시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21,22)

**David.**

더 연구하고 싶으신 분은 인터넷을 보세요.

인터넷 주소: **csda- korea.org**  
**csda.kr**